

[기획논문]

경기 화성지역 문학공간 연구

김명준

(단국대 강의교수)

차례

1. 머리말	으로 표상된 공간
2. 문학공간 화성의 의미망	3) 고향, 다양한 의미의 확산 공간
1) 역사의 동력과 비애의 울분이 표출되는 공간	4) 사무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농촌의 삶과 애환의 창작 현실
2) 만남과 이별, 그리고 고립된 단절의식	3. 맺음말

1. 머리말

요즘 문학공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인 거대서사를 거부하고 이질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출현과 함께 각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변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문화의 향수라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계된 인식이 달라진 것도 한 원인이다. 이에 따라 문학공간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¹⁾

그렇다면 문학공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작가의 상상력과 지각세계에 의해 형성된 문학공간은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경험의 구조”²⁾에서 나온

1) 이러한 점에서 현재,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현대문학 지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실용화 방안연구>는 문학작품의 내재적·외재적 공간성에 주목하여 방대한 지역의 작품 창작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문학의 현장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2) 에드워드 홀, 최효선 역, 『숨겨진 차원-공간의 인류학』, 한길사, 2003, p.30.

것이다. 그곳에서 존재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오랜 문화적 습속을 물려받은 인간의 삶과 죽음과 사랑이 다양한 진폭으로 영위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인 공간이 문학으로 재구될 때, 낯설고 추상적인 공간은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공간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곳은 정서적·사회적·역사적 의미의 구체성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공간은 그곳이 아무리 단편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당기는 '하나의 힘'을 갖게 되는데,³⁾ 그것은 '그림자와 물과 산과 인간의 삶을 거느린 채 움직이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⁴⁾ 말하자면 문학공간은 단순한 공간적 의미를 넘어 인간의 의식세계를 조직화한 의미의 세계인 것이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는 소통을 하고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며 우리가 공유하지 못했던 자유와 낭만과 문화의 생성적 돌기를 온 몸으로 느끼고 이를 재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곳이자, 다양한 의미를 창출하는 유의미한 공간이 문학의 공간이다. 그 공간은 '사실의 땅이며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에 고향, 시골, 지방과 국토, 바다와 자연환경, 동서와 남북, 세계와 우주, 길과 지도 등등 문학의 공간과 주제에서 학문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리매김 된다.⁵⁾ 그러므로 한국의 현대문학은 '공간'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작가와 작품을 다시 들여다 볼 때, '전체로서의 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림'은 물론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 역시 깊어'질 수 있다.⁶⁾ 이러한 점에서 문학공간에 대한 성찰은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인 동시에 우리 학문에 대한 성찰"⁷⁾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문학공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공간에 대한 감각적 인식일 수 있고, 시대적인 고통에 대한 감수성일 수 있다. 또한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인 특수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일 수 있고, 인간 심성에 내재한 보편적인 심

3) 이 말은 모리스 블랑쇼의 말을 변형하여 적용한 것이다. 모리스 블랑쇼는 "한 권의 책은, 비록 그것이 단편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당기는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모리스 블랑쇼, 박혜영 역, 『문학의 공간』, 책세상, 1998, 머리말 중에서.

4) 임동현,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글로세움, 2003, '저자의 말' 중에서.

5) 김태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문학지리학을 위하여」,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상상공간』 상, 논형, 2005, pp.5~8. 참고.

6) 최재봉, 『간이역에서 사이버스페이스까지』, 이룸, 2003, pp.4~5. 참고.

7) 김태준, 앞의 책, p.6.

리에 근거한 분출일 수도 있으며, 보편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변화에 대한 충격과 분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문학공간에 접근할 때 작품 속 공간이 환기시켜주는 의미망을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화성지역의 현대문학에 표상된 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작가의 심상에 포착된 공간이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⁸⁾ 따라서 이 글은 경기지역 문학공간 답사 결과의 일환으로 우선, 화성지역의 문학 속에 형성되어 있는 공간의 의미망과 그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학공간 화성의 의미망

1) 역사의 동력과 비애의 울분이 표출되는 공간

— 화성군 동판면 석우리 일대

암울했던 일제하의 민족적 울분과 비애를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시로 표출한 시인 홍사용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그는 구한말인 1900년에 태어나 1947년에 작고했다. 본래 그가 태어난 곳은 이곳 석우리와 이웃한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용수골 마을로, 지금은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단지로 바뀌었다. 그 옛날 서(徐)주부 약국이란 한약국이 있었던, 석우리에서 수원장으로 나가는 길 한 옆에 자리 잡았던 작은 마을이었다. 노작은 출생 후 곧 석우리로 이주하며 마을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며 성장했고 죽은 뒤에는 이 마을 먹실골 얹은 산자락에 묻혔다.⁹⁾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 그날 밤도 이렇게 달 있는 밤인데요./ 으름 달이 무리 서고 뗏동산

8) 문학텍스트 선정방식과 문학공간 기술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 3장 '문학공간 분석을 위한 기술방법'을 참고할 것. 김명준, 「문학공간에 대한 분석적 기술방법」, 김수복 편저,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pp.42~51.

9)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한국문학지도』 상, 계몽사, 1996, p.154.

에 부영이 울음 울던 밤인데요./ 어머니께서는 구슬픈 옛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일없이 한숨을 길게 쉬시며 웃으시는 듯한 얼굴을 얼른 숙이시더라. (……)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설움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 홍사용, 「나는 왕이로소이다」 일부¹⁰⁾

이 시는 삶에 가득 차 있는 비애의 정서가 주조를 이룬다. 시인 자신의 우울한 세계관의 표현인 작중 화자 ‘나’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득 찬 슬픔과 눈물만을 가진 ‘눈물의 왕’이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맨 처음으로 낸 소리 또한 울음 소리였다. 말하자면 삶의 시초부터가 고통이며 슬픔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와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할 뿐이다.

이와 같은 우울한 세계관은 홍사용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개인적 기질에도 한 원인이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1920년대 초기의 시대 상황, 즉 식민지의 현실과 3·1운동의 좌절 등과 같은 현실 속에 살았던 지식인들의 절망감에서 그 이유를 찾을 듯하다.

홍사용이 이 마을을 떠난 것은 열일곱 살 서울 휘문고보에 유학하면서였다. 그 곳 휘문고보에서 홍사용은 박종화, 정백 등과 어울려 문학에 심취했고, 이 학교를 졸업한 후 동인지 《백조(白潮)》를 냈다. 그렇게 시인의 길로 접어든 홍사용은 감정적인 서정시들을 썼다. 곧,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설움이 있는 땅은 모두 눈물의 왕인 자신의 나라”라고 노래했던 것이다.

그는 발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던 시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비롯하여 「그것은 모다 꿈이었지마는」 등 20여 편의 자유시와 민요시를 남겼다. 시인으로서의 활동 못지않게 그는 신극운동에도 발 벗고 나서 토월회, 산유화회 등의 극단을 이끌기도 하였다. 희곡 창작은 물론 연출과 연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홍사용은 일제 강점기를 살며 여러 문인들이 헤절하였음에도 끝내 친일의 굴 한 줄도 남기지 않은 일로 더 유명

10) 홍사용, 「나는 왕이로소이다」, 근성서재, 1976, pp.42~46 참조.

하다.

특히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진영의 민요시 운동에도 적극 공감하여 「조선은 메나리 나라」라는 뛰어난 민요시론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 우리 민요를 '민중의 노래'로 규정했던 그는 무가, 불교가요, 판소리 배뱅이굿, 탈춤 등에서 민요의 원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한말을 전후로 하여 용수골과 석유리 일대의 거부였던 홍사용 가문은 동인지 발간과 신극 운동의 재정을 대느라 가산을 모두 처분하여 이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그리고 지난 1970년대 중엽까지도 그의 첫째 부인 원씨와 그 딸이 살았던 집터마저 현재는 남의 소유로 넘어갔고 아파트 단지 개발로 다 사라졌다. 해방과 근대화를 거쳐 오면서 역사의 동력으로 자리해 온 홍사용의 정신적 본향은 개발에 묻혀버리고 만 것이다. 현재 이곳 농촌의 모습은 간 데 없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주봉산 아래 오산천만이 지난 시절의 정신적 본향을 아로새길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또 다른 역사의 동력이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나간 숨결을 탓할 일만도 아니다.

현재 그의 묘소는 주봉산 먹실골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화성 수원 지역 문인들에 의하여 화강암 배석을 두른 봉분으로 시비와 함께 위치하고 있는 그의 묘소는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듯 초라하기 그지없다. 묘 앞에는 화성시로부터 향토유적 제13호(2002. 12. 3)로 지정된 지정서 만이 빛바랜 채 무덤을 지키고 있다. 묘의 우측에는 시비가 서 있는데 앞면에는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시 일부가 소당 이수덕의 한글 예서체로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국한문 혼용으로 노작의 약력과 시비건립위원회 이름이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묘지 하단부는 철조망으로 빙 둘러 있어 마치 노작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고향의 좁은 땅에 갇혀 있는 듯하여 애잔함이 더한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노작의 묘 주변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 온통 깎여져서 붉은 토양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2) 만남과 이별, 그리고 고립과 단절의식으로 표상된 공간

—제부도 일대

우리나라에서 진도, 완도, 남해도, 거제도, 강화도, 안면도, 대부도 등은 엄연히 섬이면서도 사실상 육지 노릇을 하는 ‘연륙도(連陸島)’들이다. 경기도 화성의 서해바다에 위치해 있는 제부도 역시 육지와 연결된 섬이다. 그러나 그 연결은 다리가 아니라 하루 두 차례씩의 썰물이 주선했다 준다. 그러니까 제부도는 하루에 두 번씩 섬이 되었다가는 다시 물이 되기를 되풀이 하여 갯벌이 드러나는 곳이다. 하루 두 번 바닷물이 갈라지는데,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의 끝 자락 감뿌리에서 간조시 이 길을 통해 2.3km쯤 달리면 제부도가 나온다.

길 끝의 철망을 돌아들자 거기에, 지금 막 생겨난 듯한 바다가 있었다. 멀리 희끄무레한 섬이 얹드린 짐승 같은 모습으로 떠 있었다. 섬은 바다 위에 떠 있었지만 구불구불한 길이 드러난 동안은 섬이 아니었다. 육지와 이어진 땅덩이. 섬이 육지와 만나는 사이 바다는 서로 길 양편으로 갈라서고 다시 바다가 만날 때 섬은 물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것은 영원한 이별일까. 계속되는 만남일까.

—서하진, 「제부도」 일부¹¹⁾

제부도는 섬 둘레가 고작 12km남짓 되는 작은 섬이다. 여기에 매들의 보금자리였다는 3개의 매바위가 섬 한 편의 모래사장 끝에 서서 바다를 지켜보고 있다. ‘제부도’라는 명칭에 관한 일화는 바닷길과 관련이 있다. 조선조 중엽 이후, 송교리와 제부도를 연결한 고랑을 “어린 아이는 업고 노인은 부축해서 건넌다”는 의미에서 ‘제약부경(制弱扶傾)’으로 불렀는데, ‘제약부경’의 ‘제’와 ‘부’자를 따와 행정구역상 제부리로 개칭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또 예부터 육지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섬이라는 뜻에서 ‘제비섬’, ‘접비섬’이라 불렀다 한다. 또 하나 제부도에 얹힌 일화중에는 옛날 국왕이 중국으로 이동하던 중 제부도 선창에 들렀다가 한 여인으로부터 우물에서 물을 받

11) 서하진, 「제부도」,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5, pp.168~169.

아 마시고 그 맛이 좋아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도 제부도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지만 지하수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이곳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서하진의 단편 「제부도」이다. '가정이 있는 직장 상사와 사랑에 빠진 한 젊은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이 섬의 독특한 생리를 남녀의 만남과 이별에 절묘하게 포진 작품이다. 제부도에서 파국을 맞이하는 기혼남과 미혼녀 사이의 애뜻하지만 고통스러운 사랑은 비극적 정조를 주조로 하고 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서정적이다. 차오르는 물살을 무시하고 '육지의 약속'을 향해 차를 몰고 가던 사랑하던 남자가 물속에 갇힌 채 실종되자, 무모하게 달리던 차에서 내려 섬으로 되돌아온 여자는 뒤늦게 '그가 사라질 작정이었'음을 깨닫는다. 계절이 바뀌자, 여자는 홀로 섬을 다시 찾는다. "그가 사라진 곳으로 (……) 그를 따라 가"기 위해서다. 최재봉은 물과 섬이, 물과 물이 만남과 헤어짐을 교대하는 현장에서 여자 역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랑과 이별의 함수 관계를 풀어보고자 한 순간을 묘사한 다음 문장은 '이름답고 슬프다'고 평가한 바 있다.¹²⁾

물이 차오르는 시간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섰던 바다가 수 천 수만의 팔을 뻗어 엉겨붙으며 만나는 시간이다. 섬이 섬으로, 물은 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이별하는 섬과 육지가 사납게 몰아치는 파도 같은 눈물을 뿌리는 시간이다. 물가에 이르자 크릉, 밀려드는 물살을 겁내듯 차가 움칠 거렸다. 두려워하지 말아. 이제 돌아가는 거야. 나는 가만가만 차를 다독이며 사라져 가는 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서하진, 「제부도」 일부¹³⁾

유부남인 그를 사랑하게 된 첩의 딸인 나. 이들은 서로 도덕적 강을 땀돌면서 아픈 생채기를 만드는데 여기서 밀물과 썰물 때 길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제부도는 만남과 이별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제부도로 간 두 사람은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서 물에 잠기는 길 위에 그는 자동차와 함께 수장되어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살아남는다.

12) 최재봉, 『간이역에서 사이버스페이스까지』, 이룸, 2003, pp.177~178.

13) 서하진, 앞의 글, p.184.

그 후 현재의 나를 찾아서 제주도를 다시 찾은 나는 그가 간 길을 따라 그
가 있는 곳, 바다 속으로 따라 간다. 현실로부터는 이별이지만 그곳에서는 만
남이 된다. 그것은 물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길의 이미지와 겹쳐진다.

황종연은 서하진의 소설 「제주도」를 ‘인간의 정열’에 대한 환유로 해석한
다. 그녀가 처한 불륜의 상황에는 운명의 아이러니가 있으며 그것은 곧 정부
(情婦)였던 그녀의 어머니가 놓여 있던 처지와 같은 것이라고 단정한다.¹⁴⁾ 그
녀는 그러한 어머니의 처지로 인해 겪어야 했던 치욕에서 벗어나고자 어린
나이에 가출을 단행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역시 정부의 길을 걸었던 것
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애인과 마지막 밀회를 나눈 곳이자 그녀에게서 애인
을 앗아간 곳’인 제주도는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났지만 역설적으로 사랑의
열정을 보여준 곳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사랑은 “도덕적 통념을 거
슬렀기에 더욱 강렬해진 사랑이며, 애인의 돌연한 죽음으로 더욱 광포해진
사랑”이었고, 그것은 “정열의 운명”이었던 것이다.¹⁵⁾

서하진의 소설이 사랑의 파국적 결말을 그리고 있다면, 이재무의 시 「제주
도」는 “사랑하면서도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거리의 미학”을 이 섬에서 보고
있다.¹⁶⁾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 말인가/ 대부도와 제주도 사이/ 그 거리만큼이면 되지 않
겠나// 손 뻗으면 닿을 듯, 그러나/ 닿지는 않고, 눈에 삼삼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이 말인가/ 제주도 대부도 사이/ 가득채운 바다의 깊이만큼이면 되지 않겠나

—이재무, 「제주도」 전문¹⁷⁾

섬과 섬 사이의 거리나 섬 사이를 가득 채운 바다의 깊이만큼의 사랑이면
어떤 사랑이든 못 이룰 게 없다는 낙관적 전망이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을 풍
요롭게 해준다. 그러므로 섬은 우리 인간관계의 진상(眞相)에 드리워진 품속

14) 황종연, 「서하진, 전경린의 소설에 관하여」, 《문학동네》 9호, 1996, 겨울 참고.

15) 황종연, 위의 글, 같은 곳 참고.

16) 최재봉, 앞의 책, p.178.

17) 이재무, 「제주도」, 『위대한 식사』, 세계사, 2002, p.53.

보다도 더 너그러운 원형적인 공간이 된다.

이와는 달리 이방인의 눈에 비친 제주도 인근의 펴와 섬들에 대한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황동규의 「제주도에서」이다.

‘이게 바답니까!’ / 황해 처음 만난 강릉산(山) 이익섭형이 내뿜은 말./ 허나 썰물의 안개 걷히며/ 저 빨/ 여기저기 돌아나는 섬들 입파도(入波島) 도리도(桃李島) 육도(六島)/ 저 빨/갈매기 물떼새 걸터다니다 쉬고 쉬다 또 걸터다니고/ 사람들 조개 소라 찾아 자루 둘러메고/ 꼬쟁이로 열심히 땅을 쪼으는/ 저 빨 속으로/ 동해에서는 보지 못한 사람 하나 나가고 있다./ 양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맨머리 바람에 날리며/ 빨리도 천천히도 아니게/저 봐! 섬과 섬 사이/ 빛의 띠처럼 둘러친 저 바다 눈부신 한가운대를 향해/ 발걸음도 고르게/ 사람 하나가.

—황동규, 「제주도(濟扶島)에서」 전문¹⁸⁾

강원도 사람이 동해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처음 경험하는 서해의 펴와 섬에 대한 인식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썰물 뒤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나는 펴와 여기저기 드러나는 섬들, 그리고 물떼새들의 분주함과 많은 사람들이 꼬쟁이로 땅을 쪼으고 있는 모습이 이방인에게는 경이롭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낯선 풍경과 진경의 놀라움으로 인식되는 무한광대한 공간이다. 황동규 시인은 이를 아주 정확하게 그려놓고 있다.

3) 고향, 다양한 의미의 확산 공간

—정문리, 석우리, 지화리 일대

(1) 양감면 정문리의 고향길

—해방기의 혼란한 정치현실을 되새기는 공간

일제 강점기 카프의 맹원으로 활동했던 소설가 박승극은 1909년 경기도

18) 황동규, 「제주도(濟扶島)에서」, 『황동규 시선집』, 문학과지성사, 1998, p.332.

화성군 양감면 정문리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월북 작가로 분단 반세기 동안 금기시 되었다가 1988년에야 해금되어 우리 문학사에서 다시금 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승국은 1929년 《조선지광》 6월호에 일제치하 농민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단편소설 「농민」을 발표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고향인 화성군을 비롯하여 수원, 평택지방에서 조국해방운동과 농민운동에 투신한 바 있는 그는 농촌·농민 문제를 주요 계급모순으로 이해하면서 소작인과 지주 계급간의 첨예한 갈등을 작품 속에 형상화하였다.

박승국이 1947년 《문학평론》에 발표한 단편소설 「길」에는 해방이후 혼란한 정치적 현실과 피폐한 민중생활이 잘 그려져 있다.

눈썹인 겨울이라 그림직도 하겠지만 어찌면 이렇게도 황량한 풍경일까, 나무 하나 없는 산(이른바 ‘해방’은 이 나라 산에서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베어갔다) 공동묘지 피처럼 엷은 납작납작한 초가집, 활기 없는 마을, 이십 년이나 삼십 년을 두고 매양, 마찬가지로인 좁은 길…… 울통불통 얼어붙은 길이 한결 더 원망스러웠다.

갑자기 쓸쓸한 생각이 치밀어 올라 가슴이 싸늘했다. 이십여 년 전부터 오고가는 이 길! 눈물과 한숨과 희망에 아루사겨진 이 길! 八一五해방의 환희에 날뛰던 이 길! 그러나 웬일인지, 그렇게도 오매불망던 고향길이, 발자국이 자꾸자꾸 늘려짐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름 없이 살다 이름 없이 죽자’

한때 괴롭게 되썩던 이런 체념이 다시 머리를 들지나 앓을까 싶어 스스로 두려웠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쓸쓸해짐을 금키 어려웠다.

‘해방 전에도 밤길을 걸려야 하고, 해방 후 오늘에도 밤길을 걸어야만 되는 것인가’

—박승국, 「길」 일부¹⁹⁾

이 소설은 주인공 용배가 수원, 오산, 양감면 등을 지칭하는 소읍과 작은 면 소재지를 오가며 활동하는 가운데 당시 민중들의 삶을 생생하게 전해준

19) 박승국, 「길」, 박승국 문학전집 편찬위원회, 『박승국 문학전집 1-소설』, 학민사, 2001, pp.361~362.

다. 해방 전후의 '밤길'과 같은 혼란한 정치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고뇌가 주인공 용배를 통해 드러난다. 이와 같이 해방 공간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은 작가 박승극이 한창 젊었을 때 일제에 대한 투쟁과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기 위해 열을 올렸을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박승극이 힘들 때면 잠시 쉬어 흐드러진 찔레꽃을 바라보며 노독을 풀었을 정문리 황톳길이 지금은 2차선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그때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2) 동탄면 석우리 능안마을과 송산면 지화리

—변화된 고향마을의 슬픔과 가난, 그리고 그리움을 되새기는 공간

1944년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16번지 능안 마을에서 태어난 시인 홍신선은 노작 홍사용 시인의 일문이기도 하다. 그는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후 1965년 《시문학》으로 시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대표적인 시집으로는 『서벽당집』, 『황사바람 속에서』 등이 있다. 홍신선은 「황사 바람 속에서」에서 자신에게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갖도록 해준 고향 마을의 슬픔, 가난 등이 어떻게 과거에서 빠져 나와 이미 바래버린 희망이 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너와 나에게 젊음은 무엇이었는가/ 수시로 입 안 말라붙던 갈한 욕망은 무엇이었는가/ 아직도 눈먼 황소들로 몰려와서는 노략질하는 것, 작대기다 무릎 꿇고 넘어지는 것, 나뭇그려지기도 하는 것./ 낡은 집 고향의 쓸쓸한 토방에서 내다보는 황사바람이여/ 오늘은 너의 자갈 갈리는 목췌 사투리들이 유난히 거칠다./ (……) / 운명은 결코 뛰쳐나갈수 없다는 것/ 장대 높이뛰기로도 시대의 담벽은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홍신선, 「황사바람 속에서」 일부²⁰⁾

고향집 토방에 앉아 있는 시인에게 황사 바람은 지나온 세상살이의 장면들

20) 홍신선, 「황사바람 속에서」, 『황사바람 속에서』, 문학과지성사, 1996, pp.34~35.

을 되새겨 준다. 시인은 그 장면들 사이사이에서 배어나오는 회오의 심정을 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읊어 낸다. 비록 시의 내용은 어둡고 낯은 느낌을 주지만, 홍신선 특유의 시각적 비유와 풍부한 어휘로 인하여 고달픈 그 시절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그려내고 있다.

한편, 시인 홍일선은 1950년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336번지 돌모루에서 태어났다. 고향의 푸른 논밭과 빛 고운 냇물을 바라보며 비교적 유복한 청소년기를 보냈으나 부친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실향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그의 시 「시인은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리」에는 고향을 등진 실향의 아픔을 잘 드러내고 있다.

길은 깊은밤/ 첫 사랑 두려움처럼/ 오산천을 거스러 올라가/ 금곡리 늪은 밤나무
숲이 끝나는 곳에서/ 꽤수 오래 된 정적 속으로 멈추었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용
주사를 빠져나온 범종소리도 지친 듯/ 잠든 마을의 배후를 서성일 뿐/ 길은 고향을
등진 자에게/ 더 이상 길이 되어 주지 못했다.

—홍일선, 「시인은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리」 일부²¹⁾

용주사의 범종소리도 고향을 등진 자에게는 길이 되어 주지 않는다. 경제적 파산으로 인하여 고향 돌모루를 등질 수밖에 없었던 홍일선은 자신에게 있어서 고향은 더 이상 희망과 그리움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나지막이 읊고 있다.

너무 알아서/ 너무나 작아서/ 하마터면 제 이름도 지니지 못할 뻔했던/ 비산비야
주봉이/ 착한 소년의 얼굴로 바라보는/ 먹실에 가면/ 잘 키운 아들이든 논작일이 있
었다./ 洪字 昌字裕字쓰시는 고집 센 노인이/ 온종일 논에서 산 덕분에/ 그 논 참으
로 아름다웠다./ 그에게 논이나 밭은/ 남양 홍씨 일가 피붙이보다도 더 중했으리라./
잡초 무성한 황톳길에는/ 중북 지나 요 며칠새 부쩍 자란 명아주 꽃이/ 날로 허리 굽

21) 홍일선, 「시인은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리」, 『99년을 대표하는 문제 시·시조』, 한국문화사, 2000, p.321.

어가는 노인에게 각별했으리라.

—홍일선, 「먹실」 전문²²⁾

이 땅 어디서나 흔히 불려지는 작은 산골마을 ‘먹실’. 이곳에서 한 고집 센 노인이 온종일 논에서 산 덕분에 가을이 오면 논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그 아름다움에 절로 감탄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고집 센 노인은 소와 더불어 주봉마저 안쓰럽게 바라볼 정도로 노쇠해져버렸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네 농촌 현실을 아프게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굴절 없이 내비치고 있다.

이와 같이 석우리는 변화된 고향마을의 슬픔과 가난,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를 강하게 내비치는 공간이 되고 있다.

한편, 화성군 서북부 해안지대, 물의 끝인 송산면 지화리는 시인 정대구의 고향이다. 지화리 마을 사람들은 선감도와 대부도를 오가면서 바닷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갔다. 유년시절을 이곳에서 보낸 정대구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지금은 시화호 방조제 건설로 인해 지화리 앞바다에 광대하게 펼쳐있던 갯벌과 거기서 들려오던 밀물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그는 고향을 잊지 않았다. 그는 아예 주소지를 지화리로 옮겨 새집을 짓고, 서울집과 고향집을 오가며 포도와 발농사를 짓고 있다. 이와 같이 지화리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그는 「겨울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강짜로 부는 바람이/ 남북으로 뻗친 산맥을 달려가며/ 경기도 화성군 용머리 뒷산 / 새파란 솔가지를 뚝뚝 부러뜨려서/ 그 솔나무 아래 집 짓고 혼자 사는/ 내 제자의 어린 가슴을/ 후려패는 것 아닌지./ 저 미운 바람아 네 비록 미울지라도/ 이 서울의 대문을 자빠뜨리고/ 골방 안으로 쳐들어올지라도/ 나는 너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등을 밀어내지는 않을 테니

—정대구, 「겨울 기도」 전문²³⁾

22) 「먹실」, 위의 책.

시인은 바람이 몹시 부는 겨울밤 용머리 뒷산 소나무 아래에 사는 제자이자 '님'일 수 있는 그리운 사람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인의 향수가 고향의 상징인 '강짜로 부는 저 미운 바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바람이 모든 것을 '자빠뜨리고 쳐들어올지라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인의 너그러운 감성이 돋보인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땅 그림자를 드리우며 묵묵히 고향을 지켜주던 '용머리 뒷산'은 바로 이와 같은 감성의 힘이었을 것이다.

4) 사무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농촌의 삶과 애환의 창작 현실

— 팔탄면 월문리, 향남면 행정리 일대

(1) 팔탄면 월문리

화성군 팔탄면 월문리는 한 작가에게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는 비애를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 그가 바로 송기원이다. 송기원은 선배작가 이문구의 주선으로 팔탄면에서도 가장 외진 곳인 월문리에서 새롭게 창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가 월문리와 인연을 맺은 것은 당시 그의 고단하고 복잡한 서울 생활을 청산하려는 의도였지만, 무엇보다도 전라남도에서 계신 홀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는 1979년 노모와 함께 월문리에 터를 잡는다. 그러나 송기원이 이곳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전두환 군사 독재 하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여의는 아픔 또한 맛보아야 했다.

그의 시 「꽃 피는 봄날 6」은 역사의 비애와 사무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다.

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해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은/ 절골을 지나 칠푼골을 거쳐
다시 돌팍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바로 돌팍산 등마루에 용구네 할머니의 안부를 물

23) 정대구, 「겨울 기도」, 문학과학사, 1994, p.88.

있습니다. (……) 우는지 웃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의 용구네 할머니 대신에/ 용구네 할머니 안부를 전해주었습니다./ 돌팍산 너머 홀로 잠든 어머니의 안부까지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송기원, 「꽃 피는 봄날 6」 일부²⁴⁾

한때 영어(圉圍)의 몸이 되기도 했었고, 모친상까지 당한 시인은 비통한 심정을 안고 깊은 산에 홀로 누워계신 어머니를 뵈러 간다. 용구네 할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떠올리는 용구네 할머니의 삶은 시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시인은 바람에 흔들리는 하얀 조팝나무 꽃무덤 속에서 고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 꽃이 들려주는 어머니의 안부에 조용히 귀 기울인다. 이미 사라져버린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이 시에 애뜻하게 그려져 있다.

“저긴 침골인데…… 공동묘지가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요?”

내가 고개를 가우뚱거리자 이선배가 다시 손짓을 했다.

“저기 술밭 뒤로 민둥산이 보인잖여? 저기여.”

나는 비로소 소개를 끄덕였다. 침골의 깊숙한 골짜기를 향해 다락논들이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왼쪽 어귀의 술밭사이로 민둥산이 엿보였다. 흔히 공동묘지 부근이 그렇듯이 아카시아나 가시나무 따위의 악목들만이 제멋대로 숲덤불을 이루어 우거져 있는 틈틈이 몇 개의 무덤이 추운 듯 엮드려 있었다. 나는 삼 년 전 몇 번인가 침골을 드나들면서도 공동묘지를 보지 못했던 까닭이 수궁이 갔다. 나무다운 나무가 없는 민둥산 쪽을 구태여 올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송기원, 「다시 월문리에서」 중에서²⁵⁾

한편, 그의 소설 「다시 월문리에서」는 송기원의 개인적 체험을 솔직하게 서술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대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아

24) 송기원, 「꽃 피는 봄날 6」, 『마음 속 붉은 꽃잎』, 창작과비평사, 1990, pp.88~89.

25) 송기원, 「다시 월문리에서」, 『다시 월문리에서』, 창작과비평사, 1984, p.5.

품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비극과 고통을 인내하고 극복하려는 작가의 의지와 결말 부분의 “침골의 깊숙한 골짜기로 향해 다락논들이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왼쪽 어귀의 솔밭사이로 민둥산이 엿보였다”는 부분처럼 서정적 문체가 곳곳에서 돋보인다.

1980년대 송기원이 차가운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질곡의 시대와 그가 비켜갈 수 없었던 생애의 자리가 자유주의 자유 실천이라는 숨 가쁜 광장이었다면 월문리는 아주 고적하고 한적한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서 그가 살았던 집은 이제 빈 집이 되어 있다. 노모가 거쳐하던 안채는 헐려 있고 작가가 집 필살로 삼았던 사랑채도 다 기울어졌다. 집의 원 주인은 이 집이 팔리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퇴락한 빈집만이 송기원의 지난날의 상흔을 말해주는 듯하다.

(2) 향남면 행정1리—「우리동네」 연작의 창작 산실

한국현대문학사에 한 획을 긋는 작품 중 하나인 이문구의 연작 「우리동네 이야기」의 창작의 현장이 바로 화성이다. 이문구의 작품집 『우리동네』는 장터 주막이나, 시월 콩타작 마당이나 초겨울 벼 수매 공판장이나 민방위 훈련 날이나 혹은 반상회 날 등에서 제씨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을 탁월하게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우리 동네’는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 1리로, 소설가 이문구가 정착하여 창작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문구는 4년여 동안 이곳에 살면서 이웃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다. 그리고 이문구는 고마운 이웃들을 『우리동네』 연작 속에서 김씨, 이씨, 최씨, 정씨, 유씨, 강씨, 조씨, 황씨 등으로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알면 지랄헌다구 물으유? 평(坪)두 배미두 있느디, 해필이면 알아듣기 그북 허게 헝타르라구 헐 건 댜냐 이계유.”

“천동면이 이렇게 촌인가…… 저런 딱헌 삶두 다 있으니, 나 보슈. 국가 시책으루, 미터법에 의히야 도량현 명칭 바뀐 지가 언젠디 여태까장 그것두 모르는 거? 당신이 시방 나를 놀려보졌다— 이계여?”

부명장은 당장 잡도리 할 듯이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다. 곁에 앉은 남병만이가 팔꿈치로 집집거리며 참으라고 했으나 김도 주눅들지 않고 앉은 채로 응수했다.

“내 말은 그렇게백기 안들리유? 저 핵교 교실 벽뺨기 좀 보슈. 뤼라고 서불였유? 나라 사랑 극어 사랑…… 우리 말을 쓰자는 건두 국가사책이래유. 옛날버텨 관공리 말 다르구 농민들 말 다르게 원칙인게유. 천동면이 이렇게 촌인가??쯔——”

—이문구, 「우리 동네 김씨」 일부²⁶⁾

「우리 동네 김씨」의 주인공 놀미 마을 김승두 씨가 논에서 들일을 하다가 마침 새참을 해들고 나온 아내와 나누는 푸념 속에는 1970년대 우리 농촌의 질박한 삶들이 고스란히 묻어 살아난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요량이 없는 가뭄을 당해, 관정을 뚫고 빛을 내어 양수기를 사들여 고군분투하는 눈물겨운 농민들의 이야기다. 소출이 적게 나오는 개뚝배미 자갈투배기 층층다랭이는 농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김씨의 내일이 조금은 안쓰러워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 졸이게 하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는 농민들의 건강한 해학 속에서 막연하나마 동이 터올 내일을 예감케 한다.²⁷⁾

현재 개발 예정지가 된 행정 1리는 사람은 살지 않고 잡초만 무성하다. 마을 집터와 길의 모습만이 잡풀 속에 어렴풋하게 보일 뿐이다. 이제 이 마을의 따뜻하고 끈끈한 온정은 작품을 통해 독자들의 마음 속에 되살아나길 바랄 뿐이다.

3. 맺음말

사람에게 있어서 고향이 있듯이 문학에도 고향이 있다. 『춘향전』의 고향은 남원이고, 민요 〈아리랑〉의 고향은 한민족의 마음이다. 고향은 땅이다. 땅은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공간이며, 걸어가는 길이다. 그것은 ‘공간(자리)’이며 ‘지리’이다. 이 공간과 지리를 얻어서 문학은 자기의 세계를 해석하고,

26) 이문구, 「우리 동네」, 『이문구 전집』 7, 숲, 1996, pp.39~40.

27) 홍일선, 『경기 문학지도』 2, 경기문화재단, 2000, p.236.

무한한 우주와 호응한다.²⁸⁾

문학공간 화성은 이러한 공간과 지리를 작가의 심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화성의 지리적 특수성과 역사적 의미, 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문제, 그리고 자연 친화의 과정 및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생 체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의 동력이 살아 숨쉬는 공간과 비애의 울분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기흥면 석우리 용수골 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봉산 일대가 포함된 이 공간은 홍사용이 식민지인으로서 민족의 비애와 울분을 키워온 정신의 고향으로 그의 대표작인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만남과 이별, 그리고 고립과 단절의식으로 표상된 공간이다. 제부도 일대에 해당되는 이곳은 서하진의 「제부도」, 이재무의 「제부도」, 황동규의 「제부도에서」에서 형상되었다.

셋째, 고향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의미로 확산되는 공간이다. 해방기의 혼란한 정치현실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변화된 고향 마을의 슬픔과 가난, 그리고 그리움을 되새기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정문리, 석우리, 지화리 일대가 해당된다. 박승극의 단편 「길」, 홍신선의 시 「황사바람 속에서」, 홍일선의 시 「시인은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리」와 「먹실」, 정대구의 시 「겨울 기도」에서 다뤄졌다.

넷째, 사무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는 공간이자 농촌의 일상적 삶과 애환이 탁월하게 형상된 창작의 현실 공간이다. 여기에는 팔탄면 월문리 일대와 「우리 동네」 연작의 창작의 현장이 바로 향남면 행정1리 일대가 해당된다. 송기원의 시 「꽃 피는 봄날 6」, 소설 「다시 월문리에서」, 이문구의 「우리동네 제씨」에서 다뤄졌다.

이와 같이 문학작품 속에 기술되어 있는 '작가 영혼의 모든 비밀과 생에 대한 모든 체험 및 작가정신의 모든 특질'²⁹⁾ 등은 대체로 문학공간과 무관하

28) 김태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문학지리학을 위하여」,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상상공간』 상(논형, 2005), p.5.

29) Virginia Wolf, Orlando: 레온 에델,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 삼영사, 1988, p.92. 재인용.

지 않다. 작가들은 공간에서 체험한 의식으로의 기억을 작품 속에 투영시킨다. 그동안 많은 작가들은 작품 속의 문학공간을 통하여 인간들이 어떻게 공간과 소통하며 존재하여 왔는지 탐구하여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방식과 사유의 지평을 감각과 이미지 상징적 장치를 통해 드러내면서 공간과 대화하였고 공간 역시 무한한 의미의 박물관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문학공간은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는 실재적인 공간이나 인지의 대상, 혹은 지리적인 실재성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곳은 인간의 모든 삶이 발현하는 장소이며,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는 곳이고 인간의 삶에 형태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실체적인 공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공간은 인간 심리에 내재한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다시 인간의 몫으로 되돌려주는 근원적인 땅임에 틀림없다. 문학공간 화성은 이러한 의미를 다양하게 되살려내는 실재적이며 상징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수복 편저,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상, 논형, 2005.
-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한국문학지도 상』, 계몽사, 1996.
- 박승극 문학전집 편찬위원회, 『박승극 문학전집 1-소설』, 학민사, 2001.
- 서하진, 「제부도」,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5.
- 송기원, 「다시 월문리에서」, 창작과비평사, 1984.
- _____, 『마음 속 붉은 꽃잎』, 창작과비평사, 1990.
- 이문구, 『이문구 전집』 7, 숲, 1996.
- 이재무, 「제부도」, 『위대한 식사』, 세계사, 2002.
- 임동헌,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글로세움, 2003.
- 정대구, 「거울 기도」, 문학과지성사, 1994.
- 최재봉, 『간이역에서 사이버스페이스까지』, 이룸, 2003.
- 홍사용, 「나는 왕이로소이다」, 근성서제, 1976.
- 홍신선, 「황사바람 속에서」, 문학과지성사, 1996.
- 홍일선, 『99년을 대표하는 문제 시, 시조』, 한국문화사, 2000.
- _____, 『경기 문학지도』 2, 경기문화재단, 2000.
- 황동규, 「제부도(濟扶島)에서」, 『황동규 시선집2』, 문학과지성사, 1998.
- 황종연, 「서하진, 전경린의 소설에 관하여」, 《문학동네》 통권 9호, 1996.
- 레온 에델,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 삼영사, 1988.
- 모리스 블랑쇼, 박혜영 옮김, 『문학의 공간』, 책세상, 1998.
- 에드워드 홀, 최효선 옮김, 『숨겨진 차원-공간의 인류학』, 한길사, 2003.